

[보도자료] ‘코미디 퀸’ 이수지, ‘청룡시리즈어워즈’ 여자 예능인상! 지예은은 ‘선한영향력상’ 영예 씨피엔터 겹경사!

2025. 7. 19.



사진 좌측부터 이수지, 지예은 프로필. (사진제공=씨피엔터테인먼트)

2025. 07. 19. - 씨피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이수지가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여자 예능인상을, 배우 지예은이 ‘선한영향력상’을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은 국내외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개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총 15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예능 부문에서는 ‘SNL 코리아’ 시즌 6·7에서 활약한 이수지와 ‘대환장 기안장’으로 주목받은 지예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씨피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한 이수지는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상에 이어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여자 예능인상까지 수상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코미디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 6·7과 ‘직장인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신들린 연기로 수많은 밈(meme)을 탄생시키며 대한민국 코미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하이스지’를 통해 예리한 관찰력으로 만든 부캐들로 온라인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예능뿐 아니라 ‘메소드클럽’, ‘노인을 위한 MZ는 없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드라마 ‘신병3’, ‘살롱 드 흠즈’에서도 배우로서의 다채로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여자 예능인상을 수상한 이수지는 “‘SNL 코리아’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정말 많다. 함께 애써주신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쿠팡플레이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SNL 코리아’에 2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완성형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중이다. 저도 더욱 애쓸 것”이라며 ‘SNL 코리아’ 속 부캐인 피부과 상담 실장 말투로 퇴장하는 순간까지 깨알 웃음을 선사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SNL 코리아’에서 ‘대가리 꽃밭’ 부캐로 매화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던 지예은은 코믹과 정극을 오가는 흡입력 강한 연기로 출연하는 작품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간의 활약으로 ‘청룡’에서 화제성을 인정받은 지예은은 예능 ‘대환장 기안장’에서 기존의 민박 버라이어티의 틀을 깨는 예측 불가능한 웃음과 이색 라인업 속 출연진들과의 환상적 케미스트리를 자랑해 시즌제 돌입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예능 ‘대환장 기안장’에서의 활약으로 ‘LG유플러스 선한영향력상’의 영예를 차지한 지예은은 “주신 상의 이름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라며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호감 연예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남겼다.

2023년 쿠팡 자회사로 출범한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신동엽, 이수지, 지예은 등 다수의 인기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다. 아티스트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쿠팡플레이의 코미디쇼와 시리즈 예능 'SNL 코리아', '직장인들' 등을 제작해 신선한 웃음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의 코미디 스튜디오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씨피엔터테인먼트 (CP Entertainment) 소개

쿠팡의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CP Entertainment)는 제작과 매니지먼트 역량을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역량 있는 창작자들이 신선하고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와 <직장인들>은 우리가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 우리의 작품들이 더 큰 사랑과 감동, 그리고 웃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최고의 아티스트의 성장을 위한 전방위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은 물론,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지원하며,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대중을 만나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창작자와 아티스트, 그리고 콘텐츠 생태계 전반과의 건강한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코미디 스튜디오로 거듭나기를 꿈꿉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